

2015 / 06 / 17 (WED)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1%대 하락세. 그리스 협상 난항으로 디플트 우려가 확대되며 외국인 4거래일 만에 순매도세로 전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 부품주들의 낙폭 확대되며 일제히 약세.

수급측면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매수세로 원익IPS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삼성테크윈, 일진디스플레이,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다음카카오 약세.

종목별로는 한화그룹으로 정식 편입을 앞두고 있는 삼성테크윈이 주식양수도 거래 종결을 앞두고 13.6% 급락세.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SDI	100 억	SK하이닉스	-704 억
NAVER	84 억	삼성전자	-490 억
다음카카오	83 억	LG이노텍	-31 억
이오테크닉스	45 억	삼성전기	-29 억
LG전자	43 억	SK C&C	-21 억
STS반도체	19 억	파트론	-20 억
LG디스플레이	19 억	위메이드	-16 억
유비쿼스	16 억	삼성에스디에	-13 억
젠크스테크놀	15 억	LS산전	-12 억
원익머트리얼	13 억	리노공업	-11 억
비츠로셀	13 억	LS	-11 억
원익IPS	12 억	아프리카TV	-10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전자	311 억	LG전자	-94 억
NAVER	79 억	LG디스플레이	-56 억
LG이노텍	35 억	삼성전기	-45 억
블루콤	26 억	SK하이닉스	-39 억
SK C&C	23 억	삼성에스디에	-31 억
비아론	18 억	다음카카오	-29 억
실리콘웍스	16 억	엘오티베콤	-16 억
마이크로컨텍	15 억	삼성테크윈	-15 억
누리텔레콤	14 억	일진디스플레이	-14 억
테라세미콘	14 억	이오테크닉스	-13 억
원익IPS	13 억	심텍	-13 억
리노공업	13 억	원익머트리얼	-12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948.94	-0.4%	-8.5%
DDR3 2Gb (Spot)	1.61 \$	-0.6%	-27.1%
NAND 64Gb (Spot)	2.64 \$	0.0%	9.1%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6 \$	-1.1%	-8.5%
LCD TV 50" Open Cell	200 \$	-0.5%	-0.5%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74.78	-1.8%	-7.9%	-979 억	198 억
KRX Semicon	1,884.31	-1.6%	0.4%	-1,132 억	280 억
(코) 반도체	982.24	-0.7%	23.2%	53 억	63 억
(코) IT H/W	402.66	-0.6%	15.5%	49 억	76 억
(코) IT S/W	2,140.91	-0.9%	7.1%	77 억	-20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55,000	-1.2%	-5.4%	-490 억	311 억
LG전자	50,300	-2.7%	-14.9%	43 억	-94 억
삼성SDI	115,000	1.8%	-0.9%	100 억	-9 억
삼성테크윈	29,600	-13.6%	24.1%	-3 억	-15 억
서울반도체	15,250	-2.2%	-24.5%	-2 억	-1 억
신도리코	67,100	-1.5%	-1.0%	-2 억	2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4,200	-4.2%	-7.4%	-704 억	-39 억
이오테크닉스	88,300	4.9%	-29.5%	45 억	-13 억
원익IPS	14,700	4.6%	5.4%	12 억	13 억
리노공업	48,000	-3.0%	25.3%	-11 억	13 억
유진테크	17,400	0.0%	7.7%	1 억	-2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61,000	-0.8%	-11.1%	-13 억	-31 억
SK C&C	265,500	-0.2%	24.4%	-21 억	23 억
포스코 ICT	5,020	-2.1%	-5.3%	-2 억	0 억
다우기술	16,400	-3.8%	37.2%	-10 억	4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27,000	0.0%	-11.9%	84 억	79 억
다음카카오	101,700	-3.7%	-17.7%	83 억	-29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6,400	-2.9%	-21.5%	19 억	-56 억
에스에프에이	49,050	0.5%	-1.2%	0 억	3 억
솔브레인	46,800	-0.6%	45.6%	0 억	1 억
덕산하이메탈	8,020	-3.3%	-28.1%	1 억	-2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3,100	-4.5%	-2.9%	-29 억	-45 억
LG이노텍	102,000	-1.9%	-9.3%	-31 억	35 억
파트론	8,250	-4.1%	-29.8%	-20 억	0 억
루멘스	4,400	-4.3%	-37.6%	-1 억	0 억
일진디스플레이	8,630	-8.4%	26.5%	10 억	-14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86,000	-1.1%	2.2%	8 억	3 억
컴투스	125,800	1.0%	-8.1%	0 억	-11 억
NHN엔터테인먼트	53,400	-1.7%	-39.0%	4 억	-2 억
게임빌	89,800	1.9%	-25.6%	8 억	1 억
위메이드	37,000	-2.8%	-2.1%	-16 억	-2 억
선데이토즈	15,800	-2.5%	-8.1%	11 억	-8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43,400	-1.2%	467.9%	0 억	0 억
한글과컴퓨터	17,800	-4.6%	-11.9%	-2 억	-5 억
코나아이	31,500	0.5%	-6.5%	0 억	0 억
슈프리카	20,000	-0.2%	-21.4%	3 억	-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2.13	0.4%	3.5%
MSCI Internet	159.08	0.2%	4.2%
MSCI Software	170.63	1.0%	4.3%
MSCI Semicon	219.06	0.0%	-0.5%
MSCI IT Services	124.17	0.4%	5.5%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44.87	0.3%	2.7%
Facebook	81.06	0.4%	3.9%
Tencent	154.10	-0.7%	37.0%
Baidu	205.00	-0.4%	-10.1%
Yahoo	40.63	0.4%	-19.6%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5.83	0.8%	-1.3%
Oracle	44.64	2.1%	-0.7%
SAP	72.96	0.7%	4.8%
EMC	27.13	0.7%	-8.8%
Symantec	23.66	0.9%	-7.8%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7.60	0.5%	15.6%
Nokia	7.14	1.9%	-9.2%
Lenovo	10.86	-2.7%	6.5%
ZTE	20.65	-3.3%	22.6%
HTC	78.7	-5.9%	-44.6%

Semicon

close	1D	YTD	
Intel	31.64	0.8%	-12.8%
Qualcomm	66.46	-0.3%	-10.6%
Texas Instruments	53.09	0.1%	-0.7%
Micron	24.24	0.0%	-30.8%
Toshiba	440	-1.0%	-14.1%
Renesas	928	0.2%	12.8%
STMicro	8.32	2.2%	11.4%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6.84	0.3%	4.0%
HP	31.65	-0.2%	-21.1%
Accenture	96.70	0.9%	8.3%
Fujitsu	722	-1.5%	12.1%
NTT Data	5,370	-1.3%	18.9%
CSC	66.94	1.1%	6.2%

Hardware

close	1D	YTD	
GE	27.22	0.0%	7.7%
Panasonic	1,747	-0.7%	22.4%
SONY	3,761	-1.4%	52.1%
Whirlpool	183.89	-0.1%	-5.1%
Electrolux	263.90	2.4%	15.3%
Haier	21.60	-1.6%	17.0%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19,880	-0.6%	50.0%
KYOCERA	6,455	-1.0%	16.2%
Nidec	9,193	-0.4%	17.1%
TDK	9,830	-1.5%	37.3%
Ibiden	2,153	0.0%	20.4%

Display

close	1D	YTD	
Sharp	170	0.0%	-36.6%
Japan Display	538	-3.1%	45.4%
AUO	4.63	0.4%	-9.0%
Innolux	16.15	-0.6%	4.9%

반도체 Semicon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원익IPS	4.6%	최근이슈

News & Issue

원익IPS, 성장성 대비 저평가

원익IPS가 성장성 대비 저평가 돼 있다는 분석에 강세. 올해부터 내년까지 삼성전자의 다방면(반도체 OLED 등) 투자에 따른 수혜가 예상됨. 특히 올 하반기 3D 낸드 추가 투자 및 시스템 LSI 투자로 실적 성장이 기대됨.

올해 예상 실적기준 PER은 12.3배로 글로벌 동종 업체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됨. 해외 고객 확보를 통한 글로벌 장비 업체로의 부상 가능성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SK하이닉	-4.2%	최근이슈

News & Issue

SK하이닉스 4% 가까이 하락, '마이크론 여파'

SK하이닉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낙폭을 확대하며 4%이상 하락세. 동종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의견 하향조정으로 인해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심도 위축된 것으로 해석됨.

전일 모건스탠리는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비중축소'로 하향조정하고 목표주가도 30달러에서 21달러로 하향조정. PC 재고 수준이 높아 3분기 계절적 수요 개선 효과가 작년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테크윈	-13.6%	최근이슈

News & Issue

삼성테크윈, 주식양수도 거래종결 앞두고 급락세

한화그룹으로 정식 편입을 앞두고 있는 삼성테크윈이 주식양수도 거래 종결을 앞두고 급락세.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고 파업, 위로금 지급 등 내부 반발로 회사측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투심 위축.

한화는 오는 29일 삼성그룹과 삼성테크윈 주식양수도 거래를 종결할 예정. 이날 열릴 예정인 삼성테크윈 임시주총에서는 사명변경과 신임 이사선임 안건이 상정되며,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삼성테크윈은 한화테크윈으로 공식 출범하게 됨.

한편 삼성테크윈은 16일 합작 자회사 삼성탈레스와 관련, 탈레스 인터내셔널과 옵션거래 계약체결을 결정했다고 공시. 거래 대상은 탈레스가 보유한 삼성탈레스 지분 50%이며 풋옵션은 탈레스가, 콜 옵션은 삼성테크윈이 보유하는 조건.

탈레스는 삼성그룹과 한화의 주식양수도 거래 종결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40일 이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삼성테크윈은 풋옵션 행사기간 경과 시점부터 40일 이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삼성탈레스는 지난 2000년 삼성그룹과 프랑스 탈레스 인터내셔널이 50:50 지분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LG전자	-2.7%	최근이슈

News & Issue

LG전자, TV 사업부의 부진이 장기화 우려에 약세

LG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에 약세.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6% 줄어든 3,279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

TV 사업부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이 주요인.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 개선폭이 크지 않고, 신흥국 수요 약세와 부정적인 환율 여건이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남미와 CIS 등 신흥국 매출 비중이 높은 점이 약점으로 작용.

휴대폰 사업부는 G4가 낮은 기대치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G4 관련 마케팅 비용 증가,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Line-up) 전면 교체 영향 등으로 수익성은 전분기 수준에 머물 전망.

2분기 G4 출하량은 250만대로 예상. 가전 사업부도 신흥국 환율 이슈가 있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이 이를 상쇄하며 전년 동기 수준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성수기에 진입한 에어컨은 지난해 시원한 여름의 영향으로 초기 예약 판매가 부진했으나, 여름기상 여건이 변수가 될 전망.

다만 3분기에는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 존재. TV는 패널 가격 약세 지속, 신모델 효과에 힘입어 흑자 전환하고, 스마트폰은 새로운 플래그십(Flagship) 모델이 출시되면서 프리미엄(Premium)폰 성과가 확대될 전망.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다음카카오	-3.7%	최근이슈

News & Issue

국세청,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착수

다음카카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 5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에 있는 다음카카오 판교사무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임. 이번 조사가 정기 또는 비정기 조사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그러나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 조사관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투입된 점으로 미뤄 비정기 조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됨. 비정기 조사는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 내용에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실시.

세무당국은 비정기 조사 시 증거 인멸이나 조작을 막기 위해 사전 통지를 생략. 이번 조사의 경우 다음카카오 측에 사전 통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정확한 조사 배경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탈세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관련 조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업계 관계자는 "기업 규모에 비해 많은 조사 인력이 투입돼 굉장이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며 "합병 이슈나 탈세 등 혐의에 관한 조사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언급.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공식 확인을 거부.

디스플레이 Display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시장점유율

News & Issue

'중소형패널 왕좌 넘보지마' 삼성디스플레이 1위 탈환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09년 4분기 일본업체인 샤프로부터 중소형(9인치 이하) 디스플레이 시장 왕좌를 넘겨받은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20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 그러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주춤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독주에도 제동이 걸렸고 지난해 4분기에는 경쟁업체에 중소형 디스플레이 1위 자리를 '잠시' 넘겨주기도 함.

그러나 삼성디스플레이는 한 분기 만에 중소형 패널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면서 시장 선도업체로서의 존재감을 과시. 17일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 매출은 102.9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전분기 대비로는 12.3% 감소. 삼성디스플레이가 1분기 24.18억달러의 중소형 패널을 팔아 23.5%의 점유율로 1위 기록.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3분기(15.3%)까지 20분기 연속 점유율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나 4분기(16%)에는 재팬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뒤진 3위를 기록. 재팬디스플레이가 1분기 16.8% (17.35억달러)로 2위를, LG디스플레이가 12.9%(13.3억달러)로 3위를 차지. 이어 샤프 11.2%(11.55억달러), 이노룩스 6.1%(6.32억달러) 등이 뒤를 이음.

삼성디스플레이가 중소형 패널 시장을 주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경쟁력에 있음. 1분기 전체 중소형 패널 시장 매출의 70%를 차지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31.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 풀HD(1,920×1,080) 이상 고해상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54.6%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

최근 대세로 떠오른 5인치 이상 패블릿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44.6%로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용치 않음.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패블릿의 비중은 2013년 1분기 22.6%에서 올해 1분기 60.7%로 급성장하면서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

1분기에 왕좌 자리를 탈환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S6엣지가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2분기에는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예상됨.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핵심 트레드인 고해상도, 대화면 중심의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두드러지면서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4배 선명한 '4K TV' 패널 월출하량 300만대 돌파

4월 전세계 4K TV 패널 출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15일 IHS에 따르면 올 4월 4K TV 패널 출하량은 잇따른 수급 증가에 힘입어 처음으로 300만대를 돌파. 이는 전세계 TV 패널 출하량의 14%에 달하는 규모. 4K TV는 풀HD TV에 비해 해상도가 4배 높은 UHD TV.

이번 기록은 고해상도 패널을 선호하는 시장 경향과 제조업체들의 높은 생산 효율성이 맞물린 결과. 앞서 대만의 패널 제조업체 AU옵트릭스와 이노룩스는 2012년 각각 55인치, 50인치 4K TV 패널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으나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출하량이 매달 1만대를 넘기지 못함. 이듬해까지도 전체 TV 패널 출하량의 2%에 불과했던 4K TV 패널의 출하량은 중국 하이엔드 TV 시장의 부상과 함께 8%까지 올라감. 당시 업체들은 3,840X2,160 픽셀의 4K 해상도를 내세워 기존 TV 패널과 차별화를 시도,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펼침.

여기에 글로벌 TV 브랜드들의 UHD TV 시장 진출도 더해짐. IHS의 수석 애널리스트 린다 린은 "오늘날 대부분의 글로벌 TV 브랜드들은 UHD TV 제품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4K TV 패널의 가격은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 IHS는 "대만의 패널 제조업체가 초기 개발을 통해 4K TV 패널 생산을 촉진했다면, 한국 제조업체들은 현재 4K TV 패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4K 패널의 대표적인 글로벌 제조업체로 떠올랐다"고 언급. 지난달 IHS 보고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의 4K TV 패널 시장점유율은 올해 전체 57%에 달할 전망. 반면 대만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7%로 2위 기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7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1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1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